

佛 가론강 재개발 다시 태어난 보르도

보르도=정상필 EU특파원

며칠 동안 내린 촉촉한 베를로,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던 보르도(Bordeaux) 시가지는 지난 10일 해가 구름을 걷어내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시민들은 오랜만에 나온 햇빛을 만끽하려는 듯 도시를 관통하는 가론(Garonne) 강변으로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듯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거나 조깅을 하는 젊은이들, 한가롭게 걷는 노인들로 길세 채워졌다.

포도주 벗길 끊기자 '죽음의 강'

취페시장 주도 재개발 사업 박차

시민들 사랑받는도심 속 쉼터로

파리의 세느(Seine), 리옹의 론(Rhone), 오를레앙의 르아르(Loire)와 함께 프랑스 4대 강에 속하는 가론 강변은 이렇게 400여 년간 보르도의 시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공간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가론강과 총 연장은 647km이며, 면적은 5만5천㎢로 달렸다. 보르도 시내의 가론은 양 안(岸)의 넓이가 300m에 이르는 거대한 모습이다.

보르도가 세계적인 포도주의 수도로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었기에 가능했다. 적당한 일 조망과 바람이 포도주를 풍미하는데에 전달되도록 벗길을 제공했다.

프랑스에서 7번째로 큰 도시이자, 남서쪽 아키텐(Aquitaine) 도(道)의 도청 소재지인 보르도는 18세기부터 포도주 생산으로 부를 이룬 보르도 지역에 의해 도시가 시작했다. 가론 강에는 이를 포도주 산인들이 지은 건물들이 벽처럼 늘어서 있다. 중세와 현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보르도는 지난 2007년 6월에 유네스코에 의해 도시 견적체가 세

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금의 보르도가 아무런 수고 없이 얻어진 것은 아니다. 가론강이 더 이상 포도주 벗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항구가 수명을 다한 뒤 보르도 시내 가론 강변은 거의 방치되며 구름을 걷어내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시민들은 오랜만에 나온 햇빛을 만끽하려는 듯 도시를 관통하는

가론(Garonne) 강변으로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듯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거나 조깅을 하는 젊은이들, 한가롭게 걷는 노인들로 길세 채워졌다.

파리의 세느(Seine), 리옹의 론(Rhone), 오를레앙의 르아르(Loire)와 함께 프랑스 4대 강에 속하는 가론 강변은 이렇게 400여 년간 보르도의 시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공간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가론강과 총 연장은 647km이며, 면적은 5만5천㎢로 달렸다. 보르도 시내의 가론은 양 안(岸)의 넓이가 300m에 이르는 거대한 모습이다.

보르도가 세계적인 포도주의 수도로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었기에 가능했다. 적당한 일 조망과 바람이 포도주를 풍미하는데에 전달되도록 벗길을 제공했다.

특히 최근 부르스 광장 인근 강변에 조성된 물거울(Le miroir d'eau)은 보르도의 명물이 됐다. 물거울은 대리석 바닥에 깊은 물을 깔아 강변에 들어선 중세 건물의 잔상이 비추도록 고쳤다. 한 여름엔 물 즐기와 수영장과 함께 하수종합처리장·하수관거점과 함께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는 등 대대적인 수질개선 사업이 펼쳐진다.

또한, 3천239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앙리 4세를 엿는 앙호남 화장대교가 만들어지고, 삼진강과 보성강에는 각각 95.6km와 26.8km의 강변도로(자전거 도로 포함)가 조성된다.

기대효과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2만13천500명의 취업유발 효과와 1조1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5천700억원의 일금소득 유발효과, 2조5천80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도 위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산단별로 따져보면 호남권 건설산업에 1조3천200억원, 제조업 3천100억원, 서비스업 2천200억원 등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산강 주변에 각종 관광 인프라까지 구축돼 전남의 새로운

유네스코에 의해 도시 견적체가 세

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금의 보르도가 아무런 수

고 없이 얻어진 것은 아니다. 가론강

이 더 이상 포도주 벗길의 역할을 하

지 못하고, 항구가 수명을 다한 뒤 보

르도 시내 가론 강변은 거의 방치되

며 구름을 걷어내면서 활기를 되찾

고 있다. 시민들은 오랜만에 나온 햇

빛을 만끽하려는 듯 도시를 관통하는

가론(Garonne) 강변으로 하나 둘 모

습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듯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거나 조깅을 하는 젊은이들, 한가롭게 걷는 노인들로 길세 채워졌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 풍드 피에르(Pont de pierre)에서 시가지 북쪽으로 3km에 이르는 좌안(左岸) 강변 산책길은 비가 내린 게 언제였나는 들판을 드러냈다.

나흘째 음 서울인 19세기 초 건설된

가론의 첫 다리